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439>

JCCT 2024-3-50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구윤정* · 홍선연**

Yoon Jung Koo* · Sunyeun Ho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229부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Jeon(2004)의 성지식, Ho(2009)의 성태도, Jo(2014)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건강증진행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여학생의 성지식이 높았으며, 생식건강증진행위 교육은 저학년이 적절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높아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생식건강증진행위의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tools utilized were sexual knowledge measurement tool by Jeon(2004), sexual attitudes measurement tool by Ho(2009),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asurement tool by Jo(2014). A total of 300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nd 229 responses were analyz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post 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IBM SPSS Statistics 21.0. Female students exhibited higher sexual knowledge, and it was evident that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education is appropriate during lower academic years. Additionally, the indication that higher sexual knowledge corresponds to higher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uggests the ongoing necessity for sexual education to enhanc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Therefore, this study could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materials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counseling and education aimed at improving nursing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Key word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Nursing Students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제1저자)

**정회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2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4일

Received: February 15, 2024 / Revised: February 28, 2024

Accepted: March 4, 2024

**Corresponding Author: hsy1009@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 행위를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이성교제가 활발해지며, 성접촉 등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한 시기로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 감염 등의 증가로 생식건강의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병이나 에이즈 등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정도가 낮고[2, 3], 이와 관련된 정보 또한 또래친구의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2, 4]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분위기,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의 부정적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으로 낮은 성지식 수준 및 문란한 성태도 등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이와 관련된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지식은 대체로 높았고[5, 6],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거나[7] 혹은 낮게 나타났다[8, 9]. 또한,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8]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성행위에 따른 책임감을 인식하여 피임 지식을 알고 실천하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을 미리 방지하며, 성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병을 예방하고 생식기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혼전임신 시 결혼을 서두르거나 인공유산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인공임신중절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미혼 대학생이 수술을 선택할 경우 안전하지 못한 불법 시술의 가능성이 높아 생식건강에도 위협요인이 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10].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어려운 실정기에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건강 증진을 위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전한 태도, 도덕적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성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1, 2, 3학년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및 미참여 설문지를 제외하고 1학년 82명, 2학년 80명, 3학년 67명이 참여하였고 남학생 33명 여학생 196명 총 229명이다.

3. 연구도구

3.1 성지식

개인이 알아야 할 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Jeon[2]이 개발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으며, 낮을수록 성지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3.2 성태도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도나 관점 중 성적 측면과 관련된 성행위나 성심리에 대한 개인의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견해로, Ho[11]의 성태도 측정도구를 수정한 35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쾌락 유희적 성 .74, 혼전순결 허용성 .79, 성허용성 .53, 동성에 허용성 .90, 낙태 허용성 .70이었다.

3.3 생식건강증진행위

Cho[10]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남학생은 16문항으로 하위요인에 안전 성행위 6문항, 성행위 책임감 4문항, 생식기 건강관리 3문항, 성병예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학생은 18문항으로 하위요인에 안전 성행위 4문항, 성행위 책임감 4문항, 생식기 건강관리 4문항, 성병예방 3문항, 생식기 위생관리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남학생 도구가 Cronbach's $\alpha=.89$ 이었고, 여학생 도구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남학생은 Cronbach's $\alpha=.72$ 이었고, 여학생은 Cronbach's $\alpha=.83$ 이었다.

4. 자료수집

연구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의 협조를 요청한 후 질문지를 직접 배포, 수거하였다.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이었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익명을 보장한다는 것과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는 민감한 내용의 답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 봉투에 설문조사 후 즉시 밀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여자 198명(86.5%), 남자 31명(13.5%)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162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1학년이 81명(35.4%), 2학년이 82명(35.8%), 3학년이 66명(28.8%)이었다. 출생순위는 장남 및 장녀가 113명(49.3%), 차남 및 차녀가 101명(44.1%)이었다. 남학생 중 군복무 여부는 병역필 15명(48.4%), 병역미필이 16명(51.6%)이었다. 거주형태는 114명(19.8%)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고,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이 66명(28.8%), 자취하는 학생이 49명(21.4%)이었다. 부모님의 성에 대한 태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5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성에 관한 지식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가 112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99명(43.2%), 고등학교 이후가 18명(7.9%) 순이었다. 성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 경로는 선생님들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78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8명(12.2%), 대중매체 25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한 두번 정도 경험한 대상자가 119명(52.0%)으로 가장 많았고,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은 한 두번 나눈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8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나눈 적이 없는 경우는 73명(31.9%)이었다.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은 178명(77.7%)이 이성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30±2.13세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52.14세 ±4.14, 어머니의 연령은 49.28±3.65세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1(13.5)
	Female	198(86.5)
Religion	Christian	35(15.3)
	Catholic	19(8.3)
	Buddhism	13(5.7)
	None	162(70.7)
Grade	Freshmen	81(35.4)
	Sophomore	82(35.8)
	Junior	66(28.8)
Birth Order	Eldest	113(49.3)
	Younger	101(44.1)
	Illegitimate daughter	15(6.6)
Military Service Status	Liable	15(48.4)
	Not Liable	16(51.6)
Residential Status	With Parents	114(49.8)
	In Dormitory	66(28.8)
	Living Alone	49(21.4)
Parents' Sexual Attitude	Conservative	88(38.4)
	Moderate	105(45.9)
	Open Minded	36(15.7)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23(53.7)
	College Graduate or More	106(46.3)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19(52.0)
	College Graduate or More	110(48.0)
Age of Exposure to Sexual Information	Elementary School	112(48.9)
	Middle School	99(43.2)
	High School	18(7.9)
Source of Sexual Information	Friends	65(28.4)
	Family Member	24(10.5)
	Teacher	78(34.1)
	Internet	28(12.2)
	Book or Magazine	9(3.9)
	Mass Media	25(10.9)
Experience of Pornography	None	80(34.9)
	Once or Twice	119(52.0)
	1-2/month	17(7.4)
	Frequently	13(5.7)
Experience with Sexual Conversations	None	73(31.9)
	Once or Twice	128(55.9)
	Frequently	28(12.2)
Hetero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None	51(22.3)
	Exist	178(77.7)
	M(SD)	
Participants' age	20.30(2.13)	
Father's age	52.14(4.14)	
Mother's age	49.28(3.65)	

2.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성지식은 23.75±6.42점이었고, 성태도는 3.16±0.36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성태도는 쾌락 유희적 성은 2.91±0.47점, 혼전순결 허용성은 3.45±0.68점, 성 허용성은 2.68±0.55점, 동성애 허용성은 3.44±0.87점, 낙태 허용성은 3.54±0.65점이었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3.44±0.45점으로, 하위영역 별로는 안전 성행위 3.52±0.51점, 성행위 책임감 3.47±0.50점, 생식기 건강관리 3.27±0.56점, 성병 예방 3.50±0.55점, 여학생의 생식기 위생관리는 3.47±0.51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of Study Variables (N=229)

Variables	Items	Mean±SD
Sexual Knowledge	35	23.75±6.42
Sexual Attitude	35	3.16±0.36
Hedonistic Sexuality	11	2.91±0.47
Premarital Chastity Permissiveness	7	3.45±0.68
Sexual Permissiveness	6	2.68±0.55
Homosexuality Tolerance	5	3.44±0.87
Abortion Permissiveness	6	3.54±0.65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남 16, 여 18	3.44±0.45
Safe Sexual Behavior	6 4	3.52±0.51
Sexual Responsibility	4 4	3.47±0.50
Reproductive Health Management	3 4	3.27±0.56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3 3	3.50±0.55
genital Hygiene	3	3.47±0.5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여학생이 24.16점으로 남학생 21.0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0, p=.013$). 기독교(2.92±0.45) 대상자보다 천주교(3.22±0.36)와 무교(3.22±0.33)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7.13, p=.000$). 부모님의 성태도가 보통인 대상자(3.12±0.35)보다 개방적 대상자의 성태도(3.30±0.35)가 유의하게 높았다($F=3.11, p=.046$). 음란물을 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3.04±0.37)보다 한 달에 한 두 번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 성태도(3.26±0.34)가 유의하게 높았다($F=4.86, p=.003$). 생식건강증진행위는 2학년이 3.51±0.38점으로 1학년 3.32±0.4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23, p=.016$).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외동아들 및 외동딸의 생식건강증진행위 3.15±0.67점보다 장남 및 장녀의 생식건강증진행위 3.48±0.43점이 유의하게 높았다($F=3.58, p=.029$).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Table 3.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1.09±6.31	-2.50	.013	3.11±0.41	-0.86	.386	3.34±0.53	-1.31	.191
	Female	24.16±6.35			3.17±0.35			3.45±0.43		
Religion	Christian	24.11±5.81	0.39	.759	2.92±0.45			3.47±0.40	0.37	.769
	Catholic	23.00±5.53			3.22±0.36	7.13	.000	3.40±0.44		
	Buddhism	25.30±5.03			3.07±0.26		a<b,d	3.55±0.37		
	None	23.63±6.76			3.22±0.33			3.43±0.47		
Grade	Freshmen	22.75±6.26	1.56	.212	3.13±0.39	0.48	.615	3.32±0.46	4.23	.016
	Sophomore	24.15±6.49			3.19±0.33			3.51±0.38		a<b
	Junior	24.46±6.47			3.17±0.35			3.49±0.49		
Birth Order	Eldest	23.06±6.45	1.48	.228	3.18±0.32	0.37	.685	3.48±0.43	3.58	.029
	Younger	24.27±6.45			3.16±0.40			3.43±0.42		a>c
	Illegitimate daughter	25.40±5.77			3.09±0.36			3.15±0.67		
Military Service Status	Liabe	20.73±6.90	-0.30	.762	3.21±0.36	1.29	.206	3.50±0.48	1.70	.099
	Not Liabe	21.43±5.92			3.02±0.44			3.19±0.54		
Residential Status	With Parents	23.69±6.56	0.01	.990	3.14±0.37	0.67	.511	3.45±0.46	0.78	.457
	In Dormitory	23.83±6.07			3.17±0.31			3.39±0.39		
	Living Alone	23.77±6.68			3.21±0.38			3.49±0.50		
Parents' Sexual Attitude	Conservative	24.75±5.55	1.82	.164	3.16±0.37	3.11	.046	3.50±0.36	3.12	.046
	Moderate	23.25±6.84			3.12±0.35		b<c	3.36±0.51		
	Open Minded	22.75±6.97	0.94	.348	3.30±0.35			3.52±0.40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4.12±5.99			3.16±0.35	-0.03	.971	3.41±0.45	-0.90	.367
	College Graducat or More	23.32±6.89			3.16±0.37			3.47±0.45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3.82±6.16	0.17	.860	3.13±0.35	-1.27	.203	3.44±0.44	0.20	.837
	College Graducat or More	23.67±6.72			3.20±0.36			3.43±0.46		
Age of Exposure to Sexual Information	Elementary School	24.00±6.78	0.49	.610	3.21±0.36	2.19	.113	3.45±0.49	0.12	.881
	Middle School	23.70±5.55			3.11±0.34			3.43±0.39		
	High School	22.38±8.55			3.16±0.44			3.41±0.50		
Source of Sexual Information	Friends	24.00±6.28	1.30	.262	3.20±0.38	1.47	.201	3.44±0.47	0.89	.485
	Family Member	21.50±8.03			3.06±0.47			3.32±0.63		
	Teacher	23.43±6.81			3.11±0.31			3.48±0.39		
	Internet	25.89±4.55			3.23±0.31			3.48±0.40		
	Book or Magazine	23.11±6.21			3.32±0.31			3.24±0.33		
	Mass Media	24.08±5.34			3.21±0.39			3.46±0.42		
Experience of Pornography	None	23.95±6.43	1.17	.322	3.04±0.37	4.86	.003	3.51±0.38	2.14	.095
	Once or Twice	23.99±6.11			3.23±0.35		a<c	3.43±0.46		
	1-2/month	23.58±8.27			3.26±0.34			3.34±0.44		
	Frequently	20.53±6.33			3.16±0.28			3.20±0.66		
Experience with Sexual Conversations	None	24.41±6.01	1.22	.295	3.21±0.39	1.42	.243	3.40±0.43	2.70	.069
	Once or Twice	23.71±5.95			3.13±0.34			3.49±0.40		
	Frequently	22.17±9.04			3.20±0.39			3.30±0.65		
Hetero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None	22.76±7.38	-1.24	.214	3.15±0.38	-0.39	.691	3.45±0.41	0.27	.781
	Exist	24.03±6.11			3.17±0.35			3.43±0.46		

4.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N=229)

성지식, 성태도($r=.237, p<.001$), 생식건강증진행위 ($r=.160, p<.005$)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r(p)	r(p)	r(p)
Sexual Knowledge	1		
Sexual Attitude	.237(.000**)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160(.015*)	.074(.265)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 $p<.05$, ** $p<.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 2, 3학년 229명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및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77.7%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Choi 등[12]의 연구도 89.6%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으로부터 습득하는 경우가 34.1%였으나,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28.4%였으며, 인터넷(12.2%)과 대중매체(10.1%)를 통해서 얻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란물을 본 경험도 대상자의 65.1%로 나타나 성에 대한 지식 습득이 친구 등 지인을 통해서 얻으며, 음란물 등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쉽다[12]. 대학생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친구나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23.75점이었는데, 선행연구에서 23.62점[13], 21.8점[14]으로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35점 만점에 다소 낮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Koo와 Kim[14]의 연구에서 본 연구결과보다 성지식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계열의 학과 뿐만 아니라 비보건계열 학과도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성지식 점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대학생은 이성교제나 성경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성에 관한 지식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3.16점으로 다소 개방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 중 혼전순결 허용성(3.45점), 동성애 허용성(3.44점), 낙태 허용성(3.54점)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쾌락 유희적 성(2.91점), 성 허용성(2.68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

성애 허용성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14-15].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낙태 허용성이 3.54점으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Koo와 Kim[14]의 연구에서는 낙태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의 58.9%가 여성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86.5%가 여성 대상자로서 임신의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낙태에 대한 허용성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 허용성은 2.68점으로 성태도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Koo와 Kim[14]의 연구에서는 성 허용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대학생들이 혼전 성관계의 경험이 많아져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도 크며 대학생의 의식변화의 영향으로 혼전 순결 보다는 정신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성 허용도가 다소 높았던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성태도에 대한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고찰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대학생들이 성의 의미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는 3.44점이었고, 이 중 생식기 건강관리가 3.27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편, 안전 성행위(3.52점), 성병 예방(3.50점) 등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성태도가 다소 개방적이었던 만큼 안전한 성행위 등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보습득이 곧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 성행위, 성행위 책임감 등 건강하고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성지식과 성태도($r=0.237, p<0.001$), 성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r=0.160, p<0.005$)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Kang과 Hwang[16]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0.220, p<0.005$). Kim과 Eo[1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

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r=.20$, $p<.005$, 여학생 $r=.220$, $p<.005$).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생식건강증진행위 수행 또한 높은 것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지식을 교육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성지식 점수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학년의 성지식이 2, 3학년보다 더 낮았으며,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 정도는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성행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선행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추후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다수의 양적연구가 있으며, 양적 분석만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어 이들과만 가지는 인식론적 관점을 심도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 확립을 통한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책임감과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성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처방이 절실하며, 대학생들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육시설, 교육인력 등 행재정적 교육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지식이 높았으며, 생식건강증진행위는 1학년이 낮게 나타나 저학년이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안전 성행위, 성병 예방, 생식기 위

생관리가 전체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생식건강증진행위의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 학생과는 달리 의학적 지식 기반이 있는 이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M. Koo, and H.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1-11, 2017.
- [2] G. S. Jeon, H. Y. Lee, and S. J. Le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1, pp. 45-68, 2004.
- [3] H. Y. K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p. 25, 2007.
- [4] K. R. Shin, H. J. Park, K. E. Bae, and C. Y. Cha,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2, No. 6, pp. 624-633, 2010.
- [5] K. R. Shin, H. J. Park, and C. M. Hong,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Adult Nursing*, Vol. 22, No. 4, pp. 448-456, 2010.
- [6] M. A. Shin, and J. H. Choi, "Unmarried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Sex and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 Ecology, Vol. 19, No. 4, pp. 613-624, 2010.
- [7] G. S. Yoo, and S. H. K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01-118, 2010.
- [8] K. Y. Lee, and I. O. Sim,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 34, No. 1, pp. 159-1892, 2013.
- [9] Y. K. Yang,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 18, No. 3 , pp. 159-169, 2012.
- [10] H. Y. Jo, Y. H. Kim, and H. M. Son,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Vol. 31, No. 5, pp. 29-43, 2014.
- [11]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 [12] W. J. Choi, J. H. Park, S. W. Lee, J. E. Yim, H. C. Jeong, Y. S. Lim, and S. J. Han, "The Effects of Convergen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3, pp. 145-152, 2018.
- [13] K. E. Chio, and M. Y. Chang,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Influenc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2, No. 12, pp. 807-818, 2022.
- [14] S. M. Koo, and H.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1-11, 2017.
- [15] N. H. Kim, Y. J. Park, and H. S. Jeong, "Relationship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2, pp. 17-42, 2015.
- [16] Y. S. Kang, and H. N. Hw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pp. 9-17, 2017.
- [17] M. S. Kim and Y. S. Eo, "A Study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1, No. 2, pp. 140-147, 2015.